

철학연구교육센터 인문사회연구소 지원사업 아젠다 계획서

<근대호남유학연구: 노사학파를 중심으로>

□ 연구 요약

연구목표	이 연구는 근대호남유학을 대표하는 19세기 성리학자인 노사(蘆沙) 기정진(奇正鎭, 1798~1879)과 그 제자들로 구성된 노사학파에 대한 체계적 탐구를 목적으로 한다. 한편으로는 한국유학사와 호남유학사를 구축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근대호남유학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노사학파를 네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려고 한다. ○ 첫째, 유물·유적을 비롯해서 노사학파가 남긴 유·무형의 문화유산들에 대한 광범위한 실태조사 ○ 둘째, 노사학파 전체 구성원들의 문집자료에 대한 조사와 정리 및 해제 ○ 셋째, 노사학파의 지성사적 특징을 규명할 수 있는 주요인물들의 문집에 대한 조사와 정리 및 연구 ○ 셋째, 노사학파의 지성사적 특징을 규명할 수 있는 주요인물들의 문집에 대한 조사와 정리 및 연구 ○ 넷째, 19세기 노사학파의 사상적 독창성을 보여주는 「외필」·「납량사의」 논쟁에 대한 자료집 편찬과 번역 이 연구는 선행 연구의 한계를 뛰어넘어 현재의 노사학파에 대한 연구를 한 단계 진전시키기 위한 것이다. 우리는 이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학술적 성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 ○ 첫째, 실태조사는 넓은 영역에서 간-지역적(間-地域的)으로 분포되어 있는 노사학파의 문화유산에 대한 현황을 보여줄 것이다. 이러한 현황의 파악은 노사학파의 현재성뿐만 아니라, 연관된 전통문화자원의 발굴과 보존 및 사회적 활용을 위한 근거자료로 이용될 수 있다. ○ 둘째, 현재까지 산발적으로 이루어진 선행연구들의 성과를 기초자료와 주요인물이라는 두 범주를 통해 비판적으로 종합할 수 있다. 이 연구가 다루고자 하는 기초자료와 저자들은 잠정적으로 100여 명 정도로 설정되어 있다. 이들은 기정진의 직전제자에서 4전제자에 이르는 인물군에서 고르게 선별될 예정이다. 주요인물들을 확정하고 그들의 저술을 종합 정리한 연구의 성과물들은 노사학파, 나아가 이 학파와 함께 경쟁하고 상호교류 했던 또 다른 성리학파 즉 간재 전우(田愚, 1841~1922)를 필두로 하는 간재학파, 그리고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호남근대유학을 보다 깊이 연구하려는 연구자들에게 일종의 길잡이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즉 우리가 발굴한 기초자료와 주요인물군의 범위와 의의에 대한 연구의 잠정적 한계는 그 다음 수준의 연구를 예비함으로 그 너머로 나아가려는 이들이나, 보다 깊은 연구를 수행하려는 연구자들에게 제일 먼저 검토되어야 할 학술적 자료로 참조될 것이다. ○ 셋째, 이 연구는 한국지성사에서 근대호남유학의 학술적 독창성과 고유성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것이다. 결국 우리의 연구는 노사학파의 학맥도와 지식지형도를 그리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더 나아가 서원과 사우 등의 유물과 유적 및 이들이 생산한 텍스트의 종류와 목록들을 정리한다.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철학적 쟁점들, 주요인물들과 시대 변화와 맞물린 그들의 활동상을 조망함으로써 근대호남유학의 주요 면모를 밝히는데 기여할 것이다.
-------------	---

기대효과

이 연구는 근대호남유학의 주요 학파 가운데 하나인 노사학과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다. 이 연구를 통해 간행된 결과물들은 『근대호남유학』 중서로서 다음과 같은 결과물을 산출할 것이다.

- 노사학과가 남긴 문화자원과 유물 유적의 현황
- 정돈된 100대 대표 문집들의 정리와 해제
- 주요 인물군의 분포와 학문적 성격 및 사회적 기여
- 노사학과가 중심이 된 근대호남유학의 논쟁 자료집 역주본 및 논쟁의 실제 규명을 위한 연구서

이상의 결과물을 통해 국가 및 지역사회는 노사학과라는 이름 아래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문화유산과 유물·유적의 실태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하게 된다. 특히 지역사회는 이 연구를 통해 나타난 실태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 관광, 홍보의 차원에서 노사학과와 지적 유산을 현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할 수 있다. 노사학과와 간·지역적 분포를 고려해 볼 때, 지역 단위의 연합을 통해 학술적 공동체의 서사를 개발하고 이를 문화자원으로 선용하는 정책적 실천을 계획할 수 있을 것이다. 유교문화자원의 사회적 활용과 관광자원화라는 두 측면에서 볼 때 개발 가능성이 풍부한 지적 전통의 구체성과 실체적 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대표 문집과 주요 인물 연구는 대표 문집 100여 종과 대표 인물 100여 명에 대한 종합적 정보를 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대표 문집과 인물들에 대한 목록과 그들에 대한 정돈된 정보의 제공은 학술적으로 노사학과를 깊이 있게 연구하려는 전문 연구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간재학과 나아가 실학사상가들과 개화파 인물들에 대한 확장된 연구로 나아가려는 이들에게 지침서로 작용할 것이다. 일차적으로는 우리가 제공하는 100여 명의 인물과 텍스트에 대한 정보를 살펴보고, 그 다음 우리의 연구 한계 너머로 무엇을 추구하고 탐구할 것인지를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우리의 연구는 잠정적으로 호남근대유학, 그 가운데 성리학을 연구하려는 이들에게 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실제 대상들의 전체적 정보와 목록을 제공한다. 이러한 자극을 통해 이루어진 연구들이 충분히 성숙해진 다음에는 우리가 정리한 자료의 너머로 연구의 방향이 확장될 수 있다. 결국 그 확장의 정도에 비례해서 호남근대유학의 정체성과 독자성이 더욱 명확하게 밝혀질 것이다. 우리의 연구는 이러한 단계로 학술적 탐구가 진행되는 과정의 한 가운데 위치하는 잠정적 종합의 단계를 대변하고 있다.

이 연구의 마지막 결과물은 근대호남유학, 나아가 조선후기 성리학의 거의 마지막 논쟁에 속하는 「외필」논쟁과 「납량사의」논쟁에 대한 역주 자료집과 연구총서를 제공한다. 이 두 논쟁은 노사학과와 간재학과 사이의 상호작용에 관한 기초자료로서, 우리는 『부벽록』의 성과를 참조한 확장판으로서 이 논쟁들의 자료집을 구성할 것이다. 이를 통해 그 동안 개별적으로 언급되는 이 두 논쟁의 구체적인 전개과정과 논쟁의 핵심 쟁점들, 그리고 연관된 자료들의 분포와 내용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들이 하나의 책으로 축적된다. 후속하는 연구들은 우리들의 연구를 참조한 뒤, 이 자료집을 근거로 이어지는 탐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논쟁을 다룬 연구총서 또한 자료집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이 두 논쟁에 대한 선행연구를 비판적으로 종합해서 그 한계와 의의를 보다 정돈된 형태로 학계에 제시할 수 있다. 연구자들은 이를 통해 한국유학사가 근대에 맞이한 학술적 논쟁의 성격과 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또한 이를 토대로 간재학과와 한주학과, 화서학과 등과 진행된 논쟁들에 대한 연구로 확장할 수 있다.

우리의 연구는 기존에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던 개별 연구의 한계를 현시점에서 비판적으로 종합하여 노사학과와 근대호남유학을 연구하려는 후속세대들에게 새로운 학문의 방향을 제시한다. 국가와 지역사회는 19세기 호남지역에 나타난 노사학과라는 학술적 집단이 오늘날까지 이어온 지적 전통의 유·무형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고, 이를 학술, 문화, 사회, 관광 등의 영역과 연계시켜 직·간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요약	이 연구는 19세기를 중심으로 근대호남유학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세 측면에서 노사학과를 전면적으로 연구하려는 것이다. 첫째는 유물·유적을 비롯한 유·무형의 연관된 문화유산들의 실태조사이다. 둘째는 두 학파의 지성사적 특징을 보여줄 수 있는 기초자료를 가능한 한도 내에서 충실하게 수집·정리해서 그 목록을 제시하고, 기본적 성격들에 대한 해제 작업이다. 셋째는 잠정적 기준에 의해 설정된 주요 인물군을 대상으로 그들의 생애와 사상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해마다 계획된 연구목표에 따라 생산되는 다수의 논문과 총서 및 노사학파의 주요 학설과 관련된 당대의 논쟁 자료들을 포괄하는 자료집의 제작 및 번역을 포함한다. 논문은 연차별 연구주제에 따른 학술대회를 통해 발표하고, 총서로 출판할 것이다. 노사학파의 주요 인물들, 그들의 학설과 당대의 다양한 논쟁 자료들은 총서와 역주 자료집의 형태로 출판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연구 성과들은 한국유학사와 호남학이라는 서로 다른 씨줄과 날줄의 교차라는 측면에서 그 사상사적 의의가 규명할 것이다. 이를 통해 일련의 『근대호남유학』 총서가 출판되면, 그 이후의 심화된 탐구들은 이 총서가 보여주는 학술적 윤곽을 따라 보다 심화되거나 보다 폭넓은 영역으로 확장해 갈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팀은 구체적인 네 가지의 추진 전략을 가지고 있다. ○ 첫째, 지금까지 축적된 선행연구사를 현재의 시점에서 비판적으로 종합 검토하는 이론적 작업과 동시에 오늘날까지 정리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는 노사학파의 전반적 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다. 간단하게는 유물·유적의 소재지와 현황을 비롯해서 텍스트와 인물군, 인물들의 사승 관계 등을 포함하는 유·무형의 문화자원들의 실태 조사가 포함된다. 1년차에 이 예비단계가 계획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연구 기간 전체에 걸쳐 이 실태조사와 현황 파악 작업은 지속적으로 전개될 것이다. ○ 둘째, 노사학파의 지성사적 특징을 보여줄 주요 기초자료의 발굴과 해제 작업이다. ○ 셋째, 주요인물군을 확정하고, 그들의 생애사와 사상을 개괄적으로 탐구하는 것이다. 우리는 잠정적으로 100여 명 수준에서 주요인물군과 문집류 저술의 발굴과 정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 넷째, 노사학파와 간재학파의 상호교류 및 당대의 다른 유학자들과 벌였던 주요 성리학적 논점에 대한 연구 자료집을 출판할 것이다. 19세기 호남 유학의 주요 논쟁이라고 할 수 있는 「외필」·「납량사의」 논쟁 자료집을 제작하고 번역할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논쟁에 대한 연구서를 간행한다. 이상의 모든 연구들은 『근대호남유학』이라고 불리는 일련의 총서로 해마다 간행될 것이다. 대략 각 총서당 10편의 논문을 계상할 때, 총 70여편의 논문과 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6권의 총서 및 근대호남유학 논쟁 자료집 1권을 발간한다. 유물·유적 실태자료집 1권, 기초자료 정리 해제 2권, 주요 인물 연구 2권, 그리고 19세기 호남유학 논쟁 연구서 및 자료집 각 1권 이렇게 해서 총 7권으로 이루어진 『근대호남유학』 총서가 생산될 것이다.
키워드	호남학, 근대호남유학, 노사학파, 근대호남유학논쟁, 주요인물군
키워드	Honam studies, The Confucianism in the Honam Region during the Modern Era, The Nosa School, An Argument Study of The Confucianism in the Honam Region, An Important Scholarly Study

□ 「연구수행」 부문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가. 연구목적

이 연구는 근대호남유학을 대표하는 19세기 성리학자인 노사(蘆沙) 기정진(奇正鎭, 1798~1879)과 그 제자들로 구성된 노사학파에 대한 체계적 탐구를 목적으로 한다. 한편으로는 한국유학사와 호남유학사를 구축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근대호남유학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노사학파를 네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려고 한다.

- 첫째, 유물·유적을 비롯해서 노사학파가 남긴 유·무형의 문화유산들에 대한 광범위한 실태조사
- 둘째, 노사학파 전체 구성원들의 문집자료에 대한 조사와 정리 및 해제
- 셋째, 노사학파의 지성사적 특징을 규명할 수 있는 주요인물들의 문집에 대한 조사와 정리 및 연구
- 넷째, 19세기 노사학파의 사상적 독창성을 보여주는 「외필」·「납량사의」 논쟁에 대한 자료집 편찬과 번역

근대호남유학에서 노사학파가 차지하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노사학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 기초자료 정리, 주요인물 연구, 핵심적인 학술 논쟁 자료집의 편찬과 번역이라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가 진행된 적은 없었다. 이 때문에 서로 다른 기관과 연구자들에 의해 노사학파에 대한 개별적 연구들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근대호남유학사를 전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했고, 당연히 한국의 지성사에서 호남유학이 가지는 독창성에 대한 해명이 불충분할 수밖에 없었다.

이 연구는 선행 연구의 한계를 뛰어넘어 현재의 노사학파에 대한 연구를 한 단계 진전시키기 위한 것이다. 우리는 이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학술적 성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

- 첫째, 실태조사는 넓은 영역에서 간-지역적(間-地域的)으로 분포되어 있는 노사학파의 문화유산에 대한 현황을 보여줄 것이다. 이러한 현황의 파악은 노사학파의 현재성뿐만 아니라, 연관된 전통문화자원의 발굴과 보존 및 사회적 활용을 위한 근거자료로 이용될 수 있다.
- 둘째, 현재까지 산발적으로 이루어진 선행연구들의 성과를 기초자료와 주요인물이라는 두 범주를 통해 비판적으로 종합할 수 있다. 이 연구가 다루고자 하

는 기초자료와 저자들은 잠정적으로 100여 명 정도로 설정되어 있다. 이들은 기정진의 직전제자에서 4전제자에 이르는 인물군에서 고르게 선발될 예정이다. 주요인물들을 확정하고 그들의 저술을 종합 정리한 연구의 성과물들은 노사학과, 나아가 이 학과와 함께 경쟁하고 상호교류 했던 또 다른 성리학과 즉 간재전우(田愚, 1841~1922)를 필두로 하는 간재학과, 그리고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호남근대유학을 보다 깊이 연구하려는 연구자들에게 일종의 길잡이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즉 우리가 발굴한 기초자료와 주요인물군의 범위와 의의에 대한 연구의 잠정적 한계는 그 다음 수준의 연구를 예비함으로 그 너머로 나아가려는 이들이나, 보다 깊은 연구를 수행하려는 연구자들에게 제일 먼저 검토되어야 할 학술적 자료로 참조될 것이다.

- 셋째, 이 연구는 한국지성사에서 근대호남유학의 학술적 독창성과 고유성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것이다. 결국 우리의 연구는 노사학과의 학맥도와 지식지형도를 그리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더 나아가 서원과 사우 등의 유물과 유적 및 이들이 생산한 텍스트의 종류와 목록들을 정리한다.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철학적 쟁점들, 주요인물들과 시대 변화와 맞물린 그들의 활동상을 조망함으로써 근대호남유학의 주요 면모를 밝히는데 기여할 것이다.

나. 연구의 필요성

19세기 한국 성리학을 특징짓는 현상은 대표적인 학자를 따라 다양하게 분화된 학파들의 병존이다.¹⁾ 이들 학술 집단들은 그 자신들의 독자적 주장을 내세운 대표자를 갖고 있고, 다른 학술 집단들과 활발한 토론과 논쟁을 거쳤다. 그 결과 연관된 많은 텍스트를 생산했다는 점에서 학파 단위의 학술적 활동이 갖는 두드러진 특징들을 보여주었다. 이 가운데 노사학과와 간재학파는 둘 다 기호성리학의 계열에 속하면서, 동시에 호남유학의 양대 유파라는 점에서 이채롭다.²⁾ 이 두 학파가 학술적으로 주목받을 만한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첫째, 이 두 유학 전통은 호남유학사라고 불리는 영역에서 나타난 최초의 학파군에 속한다.
- 둘째, 이들이 확립한 학파의 전통은 현대의 유학 전통과 직접 연결될 수 있는

1) 금장태와 고광식은 '韓末 道學派'라는 낱말을 제안하며 기호계열에서 5개 학파, 영남계열에서 4개 학파 등 아홉 개의 학파를 언급하고 있다. 학파의 주창자와 각각의 호칭은 다음과 같다. 이항로(李恒老, 1792~1868)의 화서학파(華西學派), 박세화(朴世和, 1834~1910)의 의당학파(毅堂學派), 송병선(宋秉璿, 1836~1905)의 연재학파(淵齋學派), 전우(田愚, 1841~1922)의 간재학파(艮齋學派), 기정진(奇正鎭, 1798~1879)의 노사학파(蘆沙學派)를, 영남계열에서 유치명(柳致明, 1777~1861)의 정재학파(定齋學派), 이진상(李震相, 1818~1886)의 한주학파(寒洲學派), 장복추(張福樞, 1815~1900)의 사미헌학파(四末軒學派), 허전(許傳, 17797~1886)의 성재학파(性齋學派). 금장태·고광식, 「한말 도학의 사상사적 조명」, 『유학근백년』(서울, 박영사, 1986), 4~6쪽 참조.

2) 현재까지 이루어진 노사학과와 간재학파에 대한 선행연구사에 대한 보다 개괄과 전망은 다음 글을 참조하라. 아래의 연구에 따르면 2018년을 기준으로 할 때, 노사학파에 대한 연구는 대략 150편에 달하는 데 비해, 간재학파에 대한 연구편수는 300편에 이른다. 박학래, 「노사학 연구의 현황과 과제」, 『동양고전연구』 70집(2018), 374~375쪽·「간재 전우와 간재학파 연구 현황 및 과제」, 『공자학』 vol30(한국공자학회, 2016), 217~262쪽 참조.

중요한 연결고리다.

- 셋째, 노사학과와 간재학파는 16세기 호남지성사에 존재하다가 기축옥사라는 정치적 사건을 계기로 잃어버렸다고 간주되던 간-지역적(間-地域的) 성격을 되찾은 사례다.³⁾

이렇듯 학파로서의 독창성과 집단성, 근현대를 거쳐 동시대로의 강한 연결성, 지역의 한계를 극복한 간-지역적 분포와 영향력이라는 특징들은 이 시기와 이들 학파의 학술적 의의를 돋보이게 만든다. 본 연구는 이 두 학파 가운데 노사학과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첫째, 근대호남유학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노사학과와 간재학파에 대한 균형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간재학파에 대한 연구는 연구소와 개별 연구자들에 의해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노사학과에 대한 연구는 간헐적으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 둘째, 한국유학이라는 포괄적 지평에서 호남유학의 독자성을 규명하려면 노사학과에 대한 연구는 필수적이다. 19세기에서 20세기 초반으로 이어지는 노사학파의 위상에 대한 연구가 없이는 호남유학사에 대한 종합적인 서술이 불가능기 때문이다.
- 셋째, 노사학과 연구는 호남학을 규명하는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유학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노사학과에 대한 종합적 연구가 없이는 19세기 호남의 지성사를 구축할 수 없다. 더구나 그들의 연속성이 현대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가정하면 그 지성사적으로 중요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근대호남유학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한 학술적 탐구들이 진행되어 왔으나, 이는 산발적으로 흩어진 채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불충분하다. 하나의 학술 집단으로서의 학파 연구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세 가지 요소 ①연관된 유물 유적의 실태에 대한 파악, ②간행본과 미간행본을 포함한 기초적인 원전자료의 정리와 해제, ③학파의 인적 구성과 주요 인물들 및 그들이 참여했던 학술적 활동과 그 귀결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면적인 연구가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노사학파의 지적 유산이 담긴 텍스트의 전모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이르는가에 대해서 아직 우리는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하다.⁴⁾ 미간행 문집들과 초고, 그 밖의 단

3) 예를 들어 김봉곤, 「嶺南地域蘆沙學派의 成長과 門人鄭載圭의 役割」, 『남명학연구』 29(경상대 남명학연구소, 2010)·「조성가(趙性家)와 최숙민(崔淑民)을 통해서 본 경상남도 지역에서의 노사학(蘆沙學)의 전개양상」, 『남명학연구』 30(경상대 남명학연구소, 2010), 1~40쪽·「嶺南地域에서의 蘆沙學派와 寒洲學派의 成立과 學說交流」, 『孔子學』 vol.14(한국공자학회, 2007), 65~84쪽 및 2010년 경상대 남명학연구소에서 개최한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김낙진의 「奇正鎮과 田愚성리학적 쟁점과 鄭載圭의 성리설」, 『南冥學研究』 vol.29(경상대 남명학연구소, 2010)을 비롯한 일련의 연구들은 이러한 간지역적 특징이 낳은 탐구의 결과물들이다.

4) 경인문화사에서 발간한 역대문집총간 시리즈 가운데 vol.451~550까지는 호남지역의 문집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정재규와 조성가, 황철현을 비롯한 노사학과 인물들의 몇몇 문집이 포함되어 있을 뿐, 정돈된 노

행본 원고들이 어느 정도인지는 확인해 본 적도 없다.⁵⁾ 「외필」⁶⁾, 「납량사의」를 둘러싼 논쟁에 대한 연구는 있지만, 그들의 배경을 이루는 원전 자료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으며, 또 얼마나 많이 흩어져 있는지에 대해서는 일목요연한 자료들을 갖고 있지 못하다.⁷⁾ 그들이 생산한 텍스트 전체를 망라해서 한문 원전들을 수집하고, 그것들을 탈초, 표점, 번역하며, 독자적 DB 구축을 통해 많은 연구자들과 일반인들에게 서비스하는 것은 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는 과제에 속한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미래의 장기적인 과제로 나아가기 위한 디딤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전거의 확보가 중요하다. 한국유학사를 씨줄로 하고 호남유학사를 날줄로 삼아 근대호남유학이라는 보다 넓은 지적 배경 위에서 노사학과와 연구성과를 종합하고, 다음 단계의 진전을 위한 잠정적 초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 선행연구와의 비교

개별 연구자들에 의해 진행된 연구 목록을 제외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학술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곳만 추려서 노사학과를 아우르는 근대호남유학을 연구하는 기관들은 대략 일곱 곳 정도가 존재한다. 간재학회, 전주대 한국근현대유학연구단, 경상대 남명학연구소, 전남대 철학연구교육센터, 한국고전번역원 호남분원, 호남학진흥원, 전북대 간재학연구소 등이다. 이들 기관의 선행 연구 성과와 한계는 다음과 같다.

□ 간재학회

간재학회는 1989년 창립된 간재사상연구회(艮齋思想研究會)가 모태가 되었다. 부정기 간행물로 1994년과 1998년 두 차례에 걸쳐 『간재사상연구논총』을 발표한 뒤, 2002년 간재학회로 정식 출범했고, 학술지 『간재학논총』을 간행하면서 간재학과와 인물군에 속하는 근현대 유학자들에 대한 가장 광범위한 개별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한 보고에

사학과라는 자의식 속에 배치된 정교한 기초문헌의 목록을 발견할 수는 없다.

- 5) 다행스럽게도 최근 들어 고전번역원 호남분원에 속한 연구자들에 의해 『노사집』이 번역되고, 호남학진흥원의 용역에 의해 전북대학교 간재연구소의 연구팀이 『간재집』의 번역을 착수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있지만 이 두 학파의 규모를 생각할 때, 이들 번역의 완료는 하나의 종결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실질적인 연구의 시작점으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기정진, 박명희·안동교 외, 『노사집』 1~5(경인문화사, 전남대 호남학연구원·조선대 고전연구원, 2018) 참조.
- 6) 「외필」을 둘러싼 논쟁의 경우만을 예로 들자면 현재까지 알려진 것만으로도 비슷한 이름들이 반복되는 다음과 같은 복잡한 잡저류 저술들의 목록을 발견할 수 있다. 「猥筆」(기정진)·「讀猥筆」(이최선)·「猥筆略辨」(권봉희)·「猥筆辨」·「猥筆後辨」·「猥筆辨辨」·「觀鄭老柏集猥筆辨辨」·「題鄭氏猥筆辨辨」(진우)·「猥筆辨」·「辨猥筆辨辨」(정세영)·「猥筆辨辨」(정재규)·「辨田愚所著蘆沙先生猥筆辨」(정의림)·「辨猥筆辨」(공학원)·「猥筆辨少筭」(권운환)·「駁猥筆問目辨」(기우승)·「辨艮齋猥筆辨」(박로술)·「辨猥筆後辨」(양희갑)·「猥筆相質說」(정시림)·「猥筆辨辨」(황철원)·「辨猥筆說」·「辨或人說」(송병순)·「奇蘆沙猥筆說」(권종화)·「辨猥筆八條」(김성중)·「讀奇蘆沙猥筆」(한유)·「奇蘆沙猥筆辨」(우하철)·「讀猥筆」(박세화)·「讀猥筆後辨」(윤웅선)·「書奇蘆沙猥筆後」(김평목)·「猥筆後辨辨」·「猥筆辨辨」·「辨田良齋鄭老栢軒猥筆辨辨」(정기). 이러한 목록의 제시조차도 일시적이다. 현재의 상태에서도 노사학과와 간재학과, 화서학과와 인물군을 포함하는 이 목록 외에도 얼마나 더 많은 자료들이 미발굴의 상태로 남아있는지에 대해 우리는 아직 정확한 정보가 없다.
- 7) 김로수(金魯洙)의 『부벽록(扶闕錄)』은 1책 82장으로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일련번호 '古 1360-50'으로 분류 보관중이다. 이 책은 1900년대 초반 기정진의 저술을 둘러싸고 유학계에서 벌어진 논란과 직·간접으로 연관된 자료들을 편집한 것인데, 송병선(宋秉璿)을 비롯한 11인의 학자들이 엮은 『영유통문(嶺儒通文)』을 비롯한 38편의 글이 수록되어 있다. 물론 이 책은 1909년에 편집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이후의 논란이 담긴 자료들을 포함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한계가 있지만, 생각보다 광범위한 영역에서 기정진의 학설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음을 증명해준다는 점에서 진전된 연구를 위해 시급히 번역할 필요성이 있는 중요한 학술적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의하면 ‘250여 편에 이르는 간재학과 관련된 개별 연구성과 가운데 간재학회가 주도한 연구 성과가 전체의 70%에 해당하는 180여 편에 육박한다.’⁸⁾ 간재학회는 개별 논문 연구와 저술을 벗어난 범위의 학술적 조사를 진행한 적이 없다. 근대호남유학이라는 지평에서 간재학과를 전체적으로 접근한 선행 연구가 학회 차원에서 나오지 않고 있다.

□ 전주대 한국근현대유학연구단

전주대 한국근현대유학연구단에서는 2012년부터 「근현대 유학자들의 사회관계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이 사업의 이상적 목표는 간재학과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이름, 자, 호, 시호, 생몰년, 출생지, 거주지, 분묘지, 스승, 활동지역, 저서 등 기본 정보 이외에 특정 인물과 관계된 관계 정보로서 관계 유형, 관계 형성자, 그리고 관계 형성자 사이의 관계 등 사회적 관계 및 그들을 포함하는 사회적 관계망의 존재를 확인하고 그것을 DB화하는 것이다. 현재 간재학과의 인물군을 대상으로 작업이 수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 3단계에 접어들어 19~20세기 호남·호서지역 근현대유학자의 사회관계망 구축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이다. DB서비스는 2020년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DB가 제시되면 간재학과의 인적 구성에 관한 충실한 기초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는 호남근대유학이라는 범주를 가정할 때 몇 가지 후속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제일 먼저 이러한 사회관계망의 범위를 노사학과로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정진의 제자군은 4전 제자까지 세어보면 약 4,000명 정도이고, 전우의 제자군은 3전 제자까지만 세어도 약 4,400명에 해당한다. 그들의 생존 연대를 유추해보면 직계 제자들이 대략 20세기 초중반, 재전제자들이 중후반, 4전 제자들은 20세기 말, 그 이후는 아마 현재 고령이어도 생존해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한 그 다음 세대가 나타나고 있을 것이다. 이들에 대한 자료들을 전주대 사업단의 사회관계망 데이터베이스 작업과 연계시키면 오늘날 노사학과와 간재학과의 학술적 전통을 유지하면서 우리 곁에서 숨쉬고 있는 사회관계망이 어느 정도이고, 또한 구체적으로 어떤 사회적 성격을 갖는지를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인명과 책명, 단행본과 유물·유적을 잇는 DB와의 연계 작업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을 위해서는 인명을 넘어선 영역에서 광범위한 노사학과의 현황에 대한 실태 조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 경상대 남명학연구소

남명학연구소의 성과는 노사학과의 간지역적 성격을 본격적으로 탐구하는 기획과 그 성과물로서 학술적 의의를 충분히 높이 평가할 수 있다. 2010년 ‘남명학의 계승양상과 강우지역의 학술’을 주제로 열린 세 차례의 잇단 학술대회는 경상도 지역의 노사학과

8) 박학래, 「간재 전우와 간재학과 연구 현황 및 과제」, 『』 225쪽, 각주 20).

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2010년 4월에는 정재규(鄭載圭)가, 11월에는 조성가(趙性家)와 최숙민(崔淑民)이, 그리고 이듬해에는 권재규(權載奎)가 다루어짐으로써 경상도 지역 노사학파의 구성원들에 대한 일련의 연구물들이 순차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⁹⁾

그러나 남명학연구소라는 정체성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연구소의 작업이 경상도 강우 지역에 분포한 노사학파의 인물군에 대한 성취물을 생산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있지만, 이 연구소에 의해서 근대호남유학의 두 학파에 대한 전면적 탐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 구체적으로 『남명학연구』 29집이 기정진의 제자였던 정재규를 특집으로 다루고, 30집이 경상도 강우 지역의 노사학파의 인물군을 다룬 것을 제외하면 그 이후 현재 61집까지 간행된 『남명학연구』는 산발적으로 개별적인 인물을 다룬 사례는 있지만, 특집과 같은 주요한 비중을 부여해서 노사학파를 전면적으로 다룬 내용이 없다.

□ 전남대 철학연구교육센터

전남대 철학연구교육센터는 2001년에 설립되어 동·서양의 고전 연구 및 특히 동·서 횡단적인 철학적 사유 모형의 창출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센터는 특히 이 지역의 전통적 지성사를 복원하고 구성하는 데 관심을 집중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지역학의 일부로서 호남유학과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사유 모형으로서 성리학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철학연구교육센터는 2015년부터 노사학파의 형성과 발전을 다루었던 『19세기 호남유학의 재구성』을 필두로 호남유학총서 시리즈를 6권 발간했고,¹⁰⁾ 또한 고전적인 성리학의 사유 모형을 출현시킨 북송 시대 정호·정이 형제의 어록인 『하남정씨유서』와 『하남정씨외서』를 역주 번역한 성리학 총서 시리즈 4권을 발간했다.¹¹⁾ 비록 철학연구교육센터의 작업이 학술 집단으로서의 노사학파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시각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정작 작업의 범위와 서술의 수준을 살펴보면, 이들의 연구 또한 전면적인 19세기 근대호남유학에 대한 탐구로 확장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한국고전번역원 호남분원

현재 한국고전번역원은 권역별거점연구소 협동번역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호남 지역에서는 전남대 호남학 연구원과 조선대 고전연구원이 공동으로 고전번역원 호남분원을 운영하면서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15년부터 2016년 사이에 국역 『노사집』 vol.1~ 5, 교감본 원문 『노사집』 vol.1~2를 간행하는 성과를 거뒀다.¹²⁾ 다만,

9) 예를 들어 김낙진, 「奇正鎮과 田愚성리학적 쟁점과 鄭載圭의 성리설」, 『南冥學研究』 vol.29(경상대 남명학연구소, 2010)·김봉곤, 「조성가와 최숙민을 통해서 본 경사우도 지역에서의 노사학의 전개양상」, 『남명학연구』 vol.30(경상대 남명학연구소, 2010)·손병욱, 「松山 權在奎성리학의 구조와 실천윤리사상」, 『남명학연구』 vol.34(경상대 남명학연구소, 2012) 등을 보라.

10) 최대우 외, 『19세기 호남유학의 재구성』-노사학파의 형성과 발전-(전남대학교 출판부, 2015). 64~108쪽 참조.

11) 정호·정이 지음, 이향준·장복동 외, 『이정유서』 vol.1~3·『이정외서』(광주, 발해그래픽스, 2019).

이들의 번역 저본은 한국고전번역원에서 발간한 한국문집총간 vo.310에 해당하는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본인데, 이것은 한국문집총간의 간행 원칙이 초간본이라는 점을 고려해 보면, 이 판본에서 제외된 기타 단행본의 추가 및 이미 간행된 다른 중간본과의 상호 대조를 거친 정본 『노사집』의 편찬과 그에 수반하는 새로운 번역 작업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¹²⁾ 이것을 보충하는 작업이 최근 출범한 호남학진흥원에 의해 부분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점을 제외하더라도 호남분원의 작업은 뚜렷한 약점을 갖는다. 기본적으로 텍스트의 번역이라는 제약된 사업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보다 폭넓은 지성사적 시각에서 근대호남유학을 파악하려는 시도는 아예 사업 목적에서 제외되고 있다.

□ 호남학진흥원과 간재학연구소

한국고전번역원 호남분원에서 번역한 국역 『노사집』에 누락된 기정진의 주요 철학적 저술 가운데 하나인 「답문류편」은 2018년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공동 지원에 의해 개설된 한국학 호남학진흥원에 의해서 번역이 수행되어 현재 출판을 위한 마무리 작업에 들어가 있고, 동시에 호남학진흥원은 전북대 간재학연구소에 『간재집』 국역을 위한 용역을 의뢰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시 말해 『노사집』과 『간재집』의 초역 및 주요 문인들의 저술에 대한 번역은 이제야 비로소 초역이 완료되거나 현재 작업이 진행 중인 상태인 것이다. 사실 『간재집』의 번역은 『노사집』과 유사한 문제를 겪고 있다. 현존하는 간재집의 판본이 세 종류이기 때문이다. 즉 『간재집』의 경우에는 번역에 앞서 정본화 사업이 선행되는 것이 이상적이다. 유감스럽게도 현재 진행 중인 번역이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는 불투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기관은 공통적인 약점을 갖는다. 짧은 역사로 인해 현재까지 연구의 수준이 번역에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 두 기관 어디에서도 학술 집단으로서의 노사학과와 간재학과에 대한 광범위한 실태조사에 기반 한 기초자료의 확보와 주요 인물군의 선정 및 정리와 같은 영역에는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

현재의 상황은 서로 다른 일곱 개의 학술 기관이 근대호남유학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 부분적으로 중첩되는 영역을 각자의 방식으로 탐구하고 있다. 간재학과에 관한 연구는 전주 지역을 중심으로 간재학회 및 간재학연구소, 전주대 근현대유학연구단이 연관되어 있다. 노사학과와 경우에는 전남대 철학연구교육센터, 남명학 연구소 및 호남학진흥원과 고전번역원 호남 분원이 연관되어 있다.

12) 국역 『노사집』은 박명희, 안동교, 김석태 등에 의해 경인문화사에서 출판되었는데 vol.1은 2015년, vol.2는 2017년, vol.3~5 및 원문 교감본 『노사집』 vol.1~2는 2018년에 간행되었다. 물론 이 이전에도 이미 전라남도 담양군의 지원에 의해 이백순과 최한선이 『노사집』 권1~20을 선행 번역한 사례가 있다. 기정진 저, 『국역 노사선생문집』, 이백순·최한선 역, 무진, 2006.

13) 기정진의 문집을 제외하고 노사학과와 개별 학자의 문집이 번역된 것은 아마도 사단법인 호남고문헌연구원에서 기정진의 주요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李最善의 『石田集 譯註』를 간행한 사례가 유일한 것으로 보인다. 이최선, 김경국 외, 『석전집 역주』(호남고문헌연구총서 문집 1)(호남고문헌연구원, 2016)

이들 선행 연구들의 가장 큰 약점은 전체적으로 기초적인 번역과 개별 인물 연구에 치우쳐 있고, 학파 단위의 학술 집단에 대한 포괄적 탐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간재학파의 경우에는 비교적 이러한 방향성으로 나아가는 연구가 존재하지만 노사학파의 경우에는 그마저도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다시 말해 선행연구들의 목록이 비록 충분하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러한 과편성을 극복하고 연구의 수준을 한 단계 더 진전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는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근대호남유학, 특히 성리학 분야의 범위가 어디서 어디까지이고, 그 속에서 우리가 다루어야 할 인물과 자료가 무엇이며, 그것들의 구체적 탐구 방식은 어떤 것인지를 제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한 마디로 노사학파에 대한 연구는 지성사적 관점에서 포괄적으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더욱이 그들의 학술적 계보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 있다는 현재적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더욱 이러한 측면의 연구가 필수적임을 알 수 있다.

라. 연구소 특성과 부합도

본 연구소는 2001년에 창립되어 “동서철학의 전문적·체계적·통합적 연구, 동서철학의 고전 번역 및 주석 작업, 호남 유학 문헌 자료정리 및 번역 사업” 등을 주목적으로 삼고 있다. 본 연구소는 지역거점대학내 부설연구소로서 이 목적의 달성을 위해 지역학으로서의 호남유학과 관련된 일련의 연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본 연구소는 호남유학총서를 지금까지 모두 여섯 권을 발행했다. 그것들은 각각 『19세기 호남유학의 재구성』¹⁴⁾에서 『호남유학의 개척자들』¹⁵⁾에까지 이른다. 그 가운데 본 연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19세기 호남유학의 재구성』이다.

이 단행본은 노사학파를 대상으로 학파의 성립, 유물 유적 실태조사, 주요 인물군, 몇몇 기초자료의 국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지만 이 책은 유물 유적의 실태조사를 위한 대상이 되고 있는 인물군은 기정진을 비롯한 아홉 명에 그치고 있는데¹⁶⁾, 기정진의 직전 제자군은 『노사선생연원록(蘆沙先生淵源錄)』만을 살펴보아도 594명에 이르고 있다. 즉 유형적인 유물 유적을 대상으로 하는 실태조사의 측면에서도 압도적으로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책은 학파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적 연구가 다루어야 할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설정하고 있는 반면에, 포괄적인 학파의 구성원들에 대한 실제적인 탐구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또한 이 연구의 과정에서 본 연구소는 근대호남유학이라고 명명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연구들이 몇 가지 범주들로 나뉘고, 그것이 몇몇 학술집단에 의해 산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었다.

노사학파에 대한 각 기관과 연구 집단들의 노력은 개인적이건 집단적이건, 체계화된 학문적 인식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결핍은 결국 근대호남유학을 대

14) 최대우 외, 『19세기 호남유학의 재구성』(전남대 출판부, 2015).

15) 이형성 외 3, 『호남유학의 개척자들』(전남대 출판문화원, 2019).

16) 대상 인물들은 겨우 기정진을 비롯해서 정재규·남정우(南廷瑀)·정기(鄭琦)·김문옥(金文錡)·기우만(奇宇萬)·양희갑(梁會甲)·백홍인(白弘寅)·이최선(李最善) 등 아홉 명에 불과하다. 최대우 외, 『19세기 호남유학의 재구성』-노사학파의 형성과 발전-,

표하는 학파에 대한 전면적 인식을 불가능하게 만든 원인이다. 우리는 탐구하고 있는 분야의 현황과 탐구 대상들을 현재의 수준에서 확인하고, 이들을 탐구하기 위해 우리가 다루어야 할 주요 자료들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다음 수준의 연구자들에게 일종의 매뉴얼로 작용할 수 있는 풍부한 정보, 유물 유적, 인물, 텍스트에 대해 일관된 기준과 서술 방식에 의해 정리된 총서의 존재가 요구된다. 이 때문에 본 연구소에서는 근대호남유학의 규명이라는 큰 목표 아래 현재의 연구를 되돌아보고 노사학과 연구를 위한 세 가지 기초자료를 점검하고 정리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본 연구소의 고유 목적과도 일치하며, 이러한 목적의식 아래서 수행되었던 과거의 선행연구들과도 정합적인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본 연구팀은 독자적인 연구뿐만 아니라, 이미 이 분야에 선행연구의 업적을 일정하게 축적하고 있는 다른 학술 기관들과의 공동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이미 언급한 적이 있는 전북대 간재학연구소 및 간재학회, 전주대 근현대유학연구단, 경상대 남명학연구소, 호남학진흥원 등과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그 주요 연구자들을 전문가 초청 세미나 및 총서의 공동저자로 초빙함으로써 그들의 연구 성과를 흡수하고 본 연구팀의 수준과 연구 내용의 충실도를 제고할 것이다. 이를 통해 파편적으로 흩어진 기존의 연구 성과를 종합함과 동시에 서로 다른 연구기관들 사이의 공동보조를 통해 공동의 학술적 주제에 대한 상호 유기적이고 긴밀한 협동 연구를 가능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방법 및 내용

가. 추진전략

이 연구는 19세기를 중심으로 하는 근대호남유학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노사학과를 전면적으로 연구하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해마다 계획된 연구목표에 따라 생산되는 다수의 논문과 총서 및 노사학과와 주요 학설과 관련된 당대의 논쟁 자료들을 포괄하는 자료집의 제작 및 번역을 포함한다. 논문은 연차별 연구주제에 따른 학술대회를 통해 발표하고, 총서로 출판할 것이다. 노사학과와 주요 인물들, 그들의 학설과 당대의 다양한 논쟁 자료들은 총서와 역주 자료집의 형태로 출판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연구 성과들은 한국유학사와 호남학이라는 서로 다른 씨줄과 날줄의 교차라는 측면에서 그 사상사적 의의를 규명할 것이다. 이를 통해 일련의 『근대호남유학』 총서가 출판되면, 그 이후의 심화된 탐구들은 이 총서가 보여주는 학술적 윤곽을 따라 보다 심화되거나 보다 폭넓은 영역으로 확장해 갈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팀은 구체적인 네 가지의 추진 전략을 가지고 있다.

- 첫째, 지금까지 축적된 선행연구사를 현재의 시점에서 비판적으로 종합 검토하는 이론적 작업과 동시에 오늘날까지 정리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는 노사학과

전반적 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다. 간단하게는 유물·유적의 소재지와 현황을 비롯해서 텍스트와 인물군, 인물들의 사승 관계 등을 포함하는 유·무형의 문화 자원들의 실태 조사가 포함된다. 1년차에 이 예비단계가 계획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연구 기간 전체에 걸쳐 이 실태조사와 현황파악 작업은 지속적으로 전개될 것이다.

- 둘째, 노사학과와 지성사적 특징을 보여줄 주요 기초자료의 발굴과 해제 작업이다.
- 셋째, 주요인물군을 확정하고, 그들의 생애사와 사상을 개괄적으로 탐구하는 것이다. 우리는 잠정적으로 100여 명 수준에서 주요인물군과 문집류 저술의 발굴과 정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 넷째, 노사학과와 간재학과와 상호교류 및 당대의 다른 유학자들과 벌였던 주요 성리학적 논점에 대한 연구 자료집을 출판할 것이다. 19세기 호남 유학의 주요 논쟁이라고 할 수 있는 「외필」·「납량사의」 논쟁 자료집을 제작하고 번역할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논쟁에 대한 연구서를 간행한다.

이상의 모든 연구들은 『근대호남유학』이라고 불리는 일련의 총서로 해마다 간행될 것이다. 대략 각 총서당 10편의 논문을 계상할 때, 총 70여편의 논문과 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6권의 총서 및 근대호남유학 논쟁 자료집 1권을 발간한다. 유물·유적 실태 자료집 1권, 기초자료 정리 해제 2권, 주요 인물 연구 2권, 그리고 19세기 호남유학 논쟁 연구서 및 자료집 각 1권 이렇게 해서 총 7권으로 이루어진 『근대호남유학』 총서가 생산될 것이다. 이상에서 서술한 내용을 종합해서 그 개요를 간략하게 표로 정리하면 우리의 연차별 추진전략과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연구 내용

본 연구는 호남근대유학의 주요 학파인 노사학과를 전면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네 가지인 방향으로 진행할 것이다.

- 첫째, 선행연구사 정리 및 유물 유적을 포함한 연관된 지적 유산 조사
- 둘째, 기초자료 정리 및 해제
- 셋째, 주요 인물과 사상 연구
- 넷째, 근대호남유학 3대논쟁 연구서와 국역 자료집

이상의 연구를 통해 현재까지 이루어진 산발적 연구 성과를 비판적으로 종합하고, 다음 단계의 체계적이고 심화된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위한 학문적 토대를 제공한다. 구체적인 연차별 연구내용 다음 표와 같다.

년차	연구 내용	성과물	비고
1년차	선행 연구사 정리 기초자료 소재 목록 및 소재 확인 주요 인물군 설정 및 연관자료 정리	연구사 정리 논문 및 유물·유적 조사보고서 통합 단행본 1권	
2년차	노사학과 기초자료 정리 및 해제 1 노사학과 인물연구 1	『노사학과 기초자료 해 제』 1권	인물연구 1은 4년차 연구 결과물에 통합해서 단행본 으로 출간
3년차	노사학과 기초자료 정리 및 해제 2 노사학과 인물연구 2	『노사학과 기초자료 해 제』 1권	인물연구 2는 5년차 연구 결과물에 통합해서 단행본 으로 출간
4년차	근대호남유학의 계승자들 1 : 노사학과를 중심으로	『근대호남유학의 계승 자들』(노사학과편) 1권	기연구된 인물과 미발굴 인물을 포함한 주요인물 50여명 선정 및 연구 예상
5년차	근대호남유학의 계승자들 2 : 노사학과를 중심으로	『근대호남유학의 계승 자들』(노사학과편) 1권	기연구된 인물과 미발굴 인물을 포함한 주요인물 50여명 선정 및 연구 예상
6년차	근대호남유학 논쟁 연구 논쟁 자료집 편찬 번역 및 출간	『근대호남유학논쟁연구 』 1권 『근대호남유학논쟁자료 집』 1권	『부벽록』의 확대 편찬 및 역주 번역 포함

3. 연구진 구성 및 연구계획

본 연구팀은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체 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책임연구원 1명, 공동연구원 2명, 그리고 본 연구팀의 학술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임연구원이 3명이며, 보조연구원이 2명으로 구성되었다. 연구소장으로서 당연직인 연구책임자를 제외한 일반공동연구원과 전임연구인력은 개별적인 전공 분야는 조금씩 다르지만 모두 조선후기유학 분야의 전공자로서 본 연구와 연관된 논문 연구와 저술, 및 번역이라는 분야에 걸쳐 충분한 경험을 쌓고 있다. 박학래는 현재 수준의 노사학과와 간재학파에 대한 국내 연구를 조망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연구자로서 이 분야의 선행 연구를 충분히 축적하고 있다. 장복동은 본 연구소에서 진행한 노사학과에 대한 시론적 연구물에 해당하는 『19세기 호남유학의 재구성』의 필진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이 연구의 구체적 성격과 유사한 연구를 경험한 연구자일 뿐만 아니라, 성리학의 주요한 기초자료 가운데 하나인 『이정유서』의 번역자로서 연구와 번역 분야에서 숙련된 연구자이다. 이형성은 간재학파와 학술적 논쟁을 벌였던 한주학파의 대표자인 이진상의 연구자일 뿐만 아니라, 다년간 간재학파의 연구를 진행한 경력이 있다. 이향준은 노사학과와 간재학파 직전의 18세기 기호유학의 대표자 가운데 하나인 한원진을 전공한 연구자로서 『19세기 호남유학의 재구성』의 집필자로 참여했고, 『이정유서』을 번역하여 본 과제를 수행하는데 적합한 연구역량을 갖추고 있다. 또한 현재 미정 상태로 남아있는 전임연구인력 1인 역시 이들과 유사한 수준의 학술적 수준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 연구자로 충원할 계획이다. 본 연구에서 이들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연구계획은 다음과 같다.

구분		성명	연구역할분담내용	연구보조원 활용인원 수
연구책임자		양순자	연구 진행의 책임 및 기초자료 정리 및 해제 인물과 사상연구 논문 및 저술	
공동연구원	일반공동연구원	박학래	기초자료 수집 정리 및 해제 및 인물과 사상연구 논문 및 저술	
	일반공동연구원	장복동	노사학과와 간재학과의 기초자료 정리 및 인물과 사상연구 논문 및 저술	1
	전임연구인력	이형성	선행연구사 정리 노사학과의 유물 유적 실태조사 및 기초자료 수집 및 해제 인물과 사상연구 논문 및 저술 자료집 번역	1
	전임연구인력	이향준	선행연구사 정리 노사학과의 유물 유적 실태조사 및 기초자료 수집 및 해제 인물과 사상연구 수행 자료집 번역	
	전임연구인력	미정	선행연구사 정리 기초자료 수집 및 해제 인물과 사상연구 수행 자료집 번역	

4. 연구수행 일정

본 연구는 1단계 3년, 2단계 3년으로 구성된다. 전체 6년의 기간은 다시 세 가지의 구별되는 작업으로 이루어지고, 그들은 모두 『근대호남유학』이라는 단일한 총서로 묶여서 출판될 것이다.

1년차에 해당하는 기초연구는 기본적으로 선행연구사의 정리와 유물 유적의 실태조사이지만, 이 조사 기간 동안 학술적으로 주요한 기초 원전자료와 주요 인물군에 대한 후보자군을 함께 조사해서 그 다음 두 단계의 연구를 위한 토대를 제공할 것이다.

2~3년차에는 주로 기초자료에 대한 정리 및 해제 작업과 함께 1단계 주요 인물 연구가 수행된다. 인물 연구의 경우 예상되는 후보군의 선정 결과에 따라 수행해야 할 연구의 증감이 가변적이기 때문에 1, 2단계로 나누어 진행하고 1단계의 연구 결과물은 본격적으로 인물 연구가 중점적으로 수행되는 3~4년차의 연구 결과물에 포함되어 출판될 예정이다. 따라서 2~3년차의 연구결과물은 노사학과의 기초자료 발굴 및 정리 해제의 결과물에 국한될 것이다.

4~5년차에는 본격적인 인물 연구가 이루어질 것이다. 본 연구팀이 예상하는 주요 인물군은 분명한 학술적 연속성을 가질 것, 후속연구를 가능하게 하는 기초자료를 충분히 남긴 인물일 것, 사회·정치·경제·역사·문화 등의 다양한 차원에서 식별 가능한 활동이 있을 것 등의 몇몇 조건을 전제로 100여 명 내외의 인물군으로 정리될 것이다. 이들은 생애, 학맥 관계, 학술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적 측면에서의 활동상 및 그들

이 남긴 기초자료 등을 토대로 분류될 것이고, 그 가운데 미발굴 상태로 현저한 유산을 남긴 이들은 개별적인 소논문을 통해 학계에 발굴 소개되고, 총서에 수록되어 후속 연구를 위한 토대로 제공될 것이다.

6년차에는 지금까지 수행한 기초자료와 인물 연구를 통해 수합된 자료를 토대로 근대호남유학의 대표논쟁이라고 할 수 있는 「외필」·「납량사의」 논쟁을 포괄적으로 재구성할 것이다. 연관된 직·간접의 모든 자료를 가능한 넓게 수집해서 순차적으로 정돈된 논쟁자료집을 편찬할 뿐만 아니라, 상세한 역주를 포함한 번역본으로 최종 제출할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보다 심도있는 이 세 가지 논쟁에 대한 연구팀의 논의를 연구총서로서 간행할 것이다. 구체적인 연차별 연구수행 일정은 다음과 같다.

과제목표 (1단계 1차년도)	19세기 호남유학 기초연구: 선행연구사 정리, 유물 유적 실태조사	
기간(YYMM)	주요내용	비고
‘19.09.~20.03	유물·유적 실태조사	전임연구원 3인
‘19.09.~20.04	선행연구사 정리	책임·공동연구원
‘20.05.~20.06	선행연구사 정리 논문 작성 및 학술대회 개최	연구팀 전체
‘20.07.~20.08	학회논문 투고 완료 『근대호남유학총서』 1: 실태조사편	연구팀 전체

과제목표 (1단계 2차년도)	노사학파의 기초자료 발굴 정리 및 해제 1	
기간(YYMM)	주요내용	비고
‘20.09.~21.05	기초자료 발굴 정리 및 해제	전임연구원 3인
‘20.09.~21.05	주요 인물 연구 1	연구팀 전체
‘21.05.~20.06	논문 작성 및 학술대회 개최	연구팀 전체
‘21.07.~21.08	학회논문 투고 완료 『근대호남유학총서』 2: 노사학파 기초자료편 1 편찬	연구팀 전체

과제목표 (1단계 3차년도)	노사학파의 기초자료 발굴 정리 및 해제 2	
기간(YYMM)	주요내용	비고
‘21.09.~22.05	기초자료 발굴 정리 및 해제	전임연구원 3인
‘21.09.~22.05	주요 인물 연구 2	연구팀 전체
‘22.05.~22.06	논문 작성 및 학술대회 개최	연구팀 전체
‘22.07.~22.08	학회논문 투고 완료 『근대호남유학총서』 3: 간재학파 기초자료편 2 편찬	연구팀 전체

과제목표 (2단계 1차년도)	노사학과 주요 인물군 연구 1	
기간(YYMM)	주요내용	비고
‘22.09.~23.05	주요 인물 연구 3	연구팀 전체
‘23.05.~23.06	논문 작성 및 학술대회 개최	연구팀 전체
‘23.07.~23.08	학회논문 투고 완료 『근대호남유학총서』 4 : 호남유학의 계승자들 1 편찬	연구팀 전체

과제목표 (2단계 2차년도)	노사학과 주요 인물군 연구 2	
기간(YYMM)	주요내용	비고
‘23.09.~24.05	주요 인물 연구 4	연구팀 전체
‘24.05.~24.06	논문 작성 및 학술대회 개최	연구팀 전체
‘24.07.~24.08	학회논문 투고 완료 『근대호남유학총서』 5 : 호남유학의 계승자들 2 편찬	연구팀 전체

과제목표 (2단계 3차년도)	근대호남유학 3대 논쟁 연구 및 논쟁자료집 편집 및 국역	
기간(YYMM)	주요내용	비고
‘24.09.~25.05	근대호남유학 논쟁 자료집 편집 및 번역	전임연구원3인
‘25.05.~25.06	논문 작성 및 학술대회 개최	연구팀 전체
‘25.07.~25.08	『근대호남유학총서』 6 : 3대논쟁 연구편 편찬 『근대호남유학총서』 7 : 논쟁자료집 편찬	연구팀 전체

5. 성과목표

가. 논문 및 저·역서 목표

구분		논문 및 저·역서 목표			비고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논문*	SCI급**	0건	0건	0건	0
	KCI급***	9건	9건	9건	27
저·역서*	단독	0건	0건	0건	0
	공동	1건	1건	1건	3

나. 학술대회 논문 발표

구분		학술대회 논문 발표			비고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학술대회	국내	6건	6건	6건	18
	국외	0건	0건	0건	0

다. 학술대회 개최 목표

구분		학술대회 개최			비고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학술대회	국내	1건	1건	1건	3
	국외	0건	0건	0건	0

라. 연구총서 발간 목표

구분		연구총서 발간			비고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연구총서		1건	1건	1건	3

6. 연구비 규모

본 연구팀의 연구비는 연간 19,625만원으로 3년 합계 58,875만원이다. 이 가운데 전임연구원과 보조연구원을 포함한 5인의 인건비는 전체 예산의 70%를 차지하며, 책임 및 공동연구원의 학술수당을 더하면 전체의 75%를 상회한다. 여기에 학술연구 부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현지 조사 및 자료 발굴을 위한 출장비와 현지교통비 항목을 감안하면 80%의 예산이 인건비와 현지 조사를 위한 비용으로 채워져 있음을 알 수 있다. 20%의 예산은 기타 학술활동과 기자재 및 연구팀의 운영을 위한 제반 비용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예산 편성은 철저히 전임연구원과 보조연구원의 학술 활동을 전폭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구성되었으며, 연구 운영 과정에서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연구비 사용의 가능성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연구예산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가. 3년간 전체 연구비 규모

(단위: 천원)

년차	신청 예산	비고
1년차	196,250	대응자금 9812,5
2년차	196,250	〃
3년차	196,250	〃
합계	588,750	2943,75

나. 연간 연구비 규모

(단위: 천원)

비목	세목		예산액	계상기준
인건비	학생인건비	보조연구원	2명x12개월x1,000천원= 24,000	• 보조연구원 2인 • 1인당 인건비 1,000천원
	전문인건비	전임연구원	3명x12개월x3,000천원= 108,000	• 전임연구원 3인 • 1인당 인건비 3,000천원
	4대보험료		10,800	• 전임연구원 인건비x10%
	소계		142,800	
직접비	학술연구비	출장여비 및 현지교통비	3명x20회x200천원= 12,000	• 전임연구원 3인 • 1인당 출장횟수 20회 • 1회 출장·교통비 200천원
		연구팀 워크샵	2회x1,500천원= 3,000	• 연구팀 전체 워크샵 2회 • 1회 개최비 1,500천원
		전문가초청 세미나 개최비	3회x1,000천원= 3,000	• 연간 개최 3회 • 전문가 활용비 400천원 • 세미나 개최비 600천원
		논문게재 지원비	9편x400천원= 3,600	• 연간 게재 논문 목표 9편 • 1회당 지원비 400천원
		학회 참가 지원비	9회x150천원= 1,350	• 연간 학회 발표 9회 • 1회당 지원비 150천원
		학술대회 개최비	1회x5,000천원= 5,000	• 연간 학술대회 개최 1회
		총서 출판비	1회x5,000천원= 5,000	• 연간 총서 출판 1회
		도서구입비	8명x400천원= 3,200	• 전체 연구팀 8인 • 1인당 도서구입비 400천원
		기타 비용	2,900	• 공공요금 등 기타비용
	소계		39,050	
	학술활동수당	책임·공동 연구원 수당	3명x12개월x400천원= 14,400	• 책임연구원 1인 • 공동연구원 2인 • 1인당 수당 400천원
합계			196,250	

인력양성 계획

1. 우수 연구인력 확보 및 양성계획

본 연구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전임연구원들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전문능력이 요구된다.

- ☐ 유물·유적의 현황과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현장 능력
- ☐ 노사학파의 기초자료를 분석하고 번역하는 한문에 대한 독해 능력
- ☐ 주요인물군을 범주화하고 이들의 지적 특징을 개괄할 수 있는 학술적 능력
- ☐ 기초자료와 주요인물군의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담론을 이끌어내는 연구 능력

이러한 능력의 전반적 수준은 하루아침에 구축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훈련과 교육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본 연구팀의 전임연구원들은 연구 기간 동안뿐만 아니라 이후의 후속작업을 위해서라도 앞서 제시된 능력과 학술적 소양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한편 본 연구에 참여하는 보조연구원들은 향후 미래 전임연구원의 후보자들로서 이러한 동일한 학술적 능력의 구체적 내용을 미리 체험하고, 장기적으로 독자적인 연구원으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 전임연구원들과 연계해서 양성하고 활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인력 양성 방안과 활용 방안은 대략 다음과 같이 약 6개 분야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 ☐ 전임연구원 및 보조연구원의 학술적 능력 신장
- ☐ 연관된 대학원 강좌 개설 및 강의
- ☐ 본 연구와 연관된 분야의 연구와 학위 취득 멘토링
- ☐ 우수 연구 성과물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 본 연구의 성과와 연관된 강좌 개설 및 진행
- ☐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공동 연구 모색 및 취업

이러한 내용은 단계별 연차별 구분이 없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며 이를 통해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고, 이 인력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학문·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조직할 것이다. 인력 양성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조직들과 연계하여 우수 인력이 자기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장도 함께 마련하려는 구상이다. 이것을 총괄적으로 도표화 하면 다음과 같다.

<단계 및 연차별 인력 양성 및 활용계획>

단계 및 연차	양성 및 활용 계획	비고
1단계 1~3년차	1. 전임연구원 및 보조연구원의 학술적 능력 신장 2. 전임연구원의 경우 본 연구와 연관된 대학원 및 학부 강좌의 개설 및 강의 3. 보조연구원의 경우 본 연구와 무연관된 학문 분야에서의 연구와 학위 취득 장려	매주 1회 전임 및 보조연구원이 참여하는 노사학과 원전자료 독회 개최(이미 1997년부터 지속적으로 매주1회 원전독회가 실시되고 있음) 전남대 철학과 대학원의 동양철학전공자를 위한 강의 개설과 인문대 내에 설립된 협동과정 고전번역학과정의 대학원 과목에 호남유학분야의 과목을 개설 운영 본 연구와 연관된 분야의 학위 취득을 원하는 보조 연구원에 대한 전임연구원의 멘토링 참여
2단계 4~6년차	4. 연구의 목표를 넘어서는 성과물과 연구 업적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5.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공동 연구 모색 및 취업 6.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대중강좌 프로그램 실시	전임 연구원과 보조 연구원들이 달성한 학술적 수준이 본 연구의 목표수준을 초과할 경우 간접비 한도 내에서 인센티브 제공 호남학진흥원과 고전번역원 호남분원 등 본 연구와 연관된 유관 기관들과 공동 작업을 모색하고, 추가연구비를 조달하며, 장기적으로 훈련된 인력의 유관 분야로의 취업을 장려 광주 향교, 장성 소재 고산서원 및 필암서원,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재 월봉서원 등 가까운 유교문화 자원과 공간을 이용한 근대유학분야 대중 강좌 프로그램을 계획 실천

2. 교육과 연구의 연계현황 및 운영계획

본 연구소는 본 사업 이전에도 이미 일련의 호남유학총서의 발간과 유학 고전의 번역을 통해 지속적 연구를 진행해 오고 있었다. 또한 교육적 측면에서도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주향교, 월봉서원, 고산서원, 무양서원, 소쇄원 등과 함께 유학 분야의 대중적인 강좌를 기획 실천해오고 있으며, 매 1년에 1회 이상의 정기적인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또한 교내연구비를 비롯한 연구비 수주 활동을 통해 관련 분야의 연구를 심화시키고 있다. 본 연구소는 이 연구를 바탕으로 노사학과라는 근대호남유학의 큰 줄기를 따라 지속적으로 연구 작업을 추진할 것이다. 따라서 교육과 연구의 연계는 다음 세 가지 분야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 ☐ 연구 역량 강화 및 교육과의 연계
- ☐ 교육 역량 강화 및 연구와의 연계
- ☐ 연구 성과의 사회적 공유와 소통

<단계 및 연차별 교육 및 연구 연계계획>

단계 및 연차	교육 연구 연계 계획	비고
1단계 1~3년차	1. 연3회 전문가 초청 강연 2. 연구팀 전체 워크숍 및 원전 독회팀 운영 3. 매년 1회 이상 학술대회 개최	매년 3회 본 연구 분야 전문가를 초청 정기적 강연을 실시(초청 전문가는 주로 본 연구소를 제외한 근대호남유학 연구 학술기관 6개 기관 연구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연구 목표의 달성 정도와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연2회 전체 워크숍 개최 및 전임·보조 연구원과 관련 대학원생을 중심으로 하는 매주 1회 노사학과 원전 독회 실시 본 연구팀의 목표인 『근대호남유학』 총서의 바탕이 될 연구성과의 축적과 수준 점검을 위한 정기 학술대회를 년 1회 개최
2단계 4~6년차	4. 본 연구팀의 연구성과를 이용한 근대호남유학 강좌 개설 및 시행 5. 대학원 과정에 연관 교과목 개설 및 전임연구원들의 강의 실시 6. 유관 기관과의 공동 강좌 개최 7. 본 연구의 성과의 사회적 공유와 소통	본 연구소의 자체 프로그램으로 전임 및 보조연구원이 참여하는 근대호남유학 강좌를 개설 및 시행 전남대 철학과 및 협동과정 고전번역대학원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근대호남유학 분야의 교과목을 신설하고, 전임연구원들이 강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구성과 보급 호남학진흥원과 전북대 간재학연구소, 전주대 근현대유학연구단, 경상대 남명학 연구소 등과 함께 공동으로 연구 성과 확산을 위한 교양 강좌 프로그램을 실행함으로써 지역 교류 장성 소재 고산서원 및 필암서원,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재 월봉서원 등 가까운 유교문화 자원과 공간을 이용한 근대유학분야 대중 강좌 프로그램 개설

1. 연구성과의 국가 및 지역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기여도

이 연구는 근대호남유학의 주요 학파 가운데 하나인 노사학파에 대한 최초의 체계적인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를 통해 간행된 결과물들은 『근대호남유학』 총서로서 다음과 같은 결과물을 산출할 것이다.

- ☐ 노사학파가 남긴 문화자원과 유물·유적의 현황
- ☐ 정돈된 100대 대표 문집들의 정리와 해제
- ☐ 주요 인물군의 분포와 학문적 성격 및 사회적 기여
- ☐ 노사학파가 중심이 된 근대호남유학의 논쟁 자료집 역주본 및 논쟁의 실체 규명을 위한 연구서

이상의 결과물을 통해 국가 및 지역사회는 노사학파라는 이름 아래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문화유산과 유물 유적의 실태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하게 된다. 특히 지역사회는 이 연구를 통해 나타난 실태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 관광, 홍보의 차원에서 노사학파의 지적 유산을 현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할 수 있다. 노사학파의 간-지역적 분포를 고려해 볼 때, 지역 단위의 연합을 통해 학술적 공동체의 서사를 개발하고 이를 문화자원으로 선용하는 정책적 실천을 계획할 수 있을 것이다. 유교문화자원의 사회적 활용과 관광자원화라는 두 측면에서 볼 때 개발 가능성이 풍부한 지적 전통의 구체성과 실체적 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학술적 성과들은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유도할 것이다.

- ☐ 정책적인 측면에서 19세기 호남지역에 나타난 노사학파라는 학술적 집단의 현황을 명료하게 파악함으로써 이들이 남긴 문화적 유산들을 유지, 개수, 보존하려는 구체적 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예를 들자면 간-지역적인 규모에서 전라도와 경상도를 포함하는 노사학파의 유물 유적에 대한 전통유교문화자원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 ☐ 사회적 측면에서 경상도 강우지역과 전라도 일원을 아우르는 노사학파의 학술·문화·역사·정치적 의의를 확인함으로써 지역감정과 같은 낡은 사회적 장벽들의 허구성을 벗겨내고 더 큰 사상적 문화적 동질성 속에서 작동하는 전통 문화의 실상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 ☐ 경제적인 측면에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고산서원의 소재지 자체인 장성군은 연구 성과를 학술, 문화, 사회, 관광 등의 영역에 연계시켜 지역의 발전을 위한 정책의 주요 참조 자료로 활용하고, 정책적 목표 설정과 시행을 위한 지

침으로 이용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연구는 노사학과라는 범주 아래 구성될 수 있는 문화자원들의 스토리텔링화, 혹은 관광자원화에 대한 요구를 자극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이러한 시도가 불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우리의 제안과 같은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연구가 부재했기 때문이다. 즉, 근대를 특징짓는 지적 사조에 대한 역사 문화적 가치에 대한 스토리텔링, 혹은 이들에 대한 관광자원화를 계획하고 상상할 수 있는 구체적 기반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다.

2. 연구성과의 파급효과 및 후속연구 파생 가능성

우리의 연구는 기존에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던 개별 연구의 한계를 현시점에서 비판적으로 종합하고, 이를 통해서 노사학과와 근대호남유학을 연구하려는 이들에게 연구 방향과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한다.

- 첫째, 노사학과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도있는 연구를 자극할 것이다. 노사학과에 대한 연구는 주요 인물군과 현존하는 문집류를 확인함으로써 연구의 범위를 확대하고 깊이를 더해갈 것이다. 또한 이 총서가 제공하는 인물과 텍스트의 목록을 따라 연구의 순서와 범위가 순차적으로 확산되는 경향을 낳을 것이다.
- 둘째, 이 연구는 비슷한 시기에 나타났던 호남유학의 또 다른 유파, 즉 간재학파에 대한 연구와 대조됨으로써 근대호남유학의 성격을 규명하려는 연구자들에게 유용할 것이다. 연구자들은 간재학파에 대한 연구와 이 연구를 함께 참조해서 19세기에서 20세기 초반을 지나, 현대에 이르는 호남유학의 발달사와 지성사를 더욱 선명하게 이해할 것이다.
- 셋째, 이 연구의 확장은 결국 한국지성사에서 호남의 근대가 차지하는 위상과 의의에 대한 해명에 기여할 것이고, 또한 이러한 방향의 연구를 자극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강조할 점은 이 연구가 무엇보다 노사학과 자체에 대한 총체적인 인물지형도와 지성사적 의의를 밝히는 데 있다는 것이다. 즉, 이 연구는 약 100여 명의 인물과 대표 문집에 연구 범위를 제약하고 있지만, 노사학파의 사상적 범위가 여기에만 머무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넘어서 보다 확장된 노사학과에 대한 연구가 우리의 연구에서 암시되고 있고, 나아가 『노사집』의 정본화 및 번역, 그리고 노사학과에 속하는 일군의 문집류에 대한 DB화 및 전자 서비스 등의 연구들이 함축되어 있다. 여기에는 전주대 근현대유학연구단이 진행하는 간재학파의 인물과 저술들에 대한 DB를 통합 연동해서 서비스 하는 한편, 이를 인물과 텍스트뿐만 아니라, 장소, 유물 유적 등에 대한 DB로 확장하는 것 역시 포함된다. 결과적으로 노사학과 연구는 근대호남유학에 대한 심화된 연구의 첫걸음이다.